

“삼별초 역사 어린이 눈높이로 담았죠”

서향숙 작가 '삼별초의 꿈' 발간
외세 맞서 나라 지킨 삼별초 다뤄
“어린이 인격 형성 위해 동화 절실”
올해 한국아동문학상 등 수상

“그려 말 몽골군에 맞서며 새로운 나라를 그렸던 삼별초의 꿈과 의지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역사동화를 통해 굳은 기성과 애국정신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향숙 동화작가

서향숙 동화작가가 최근 삼별초 역사를 다룬 장편동화 '삼별초의 꿈' (고래책방)을 펴냈다.

국내 안팎으로 어지러운 이 때에 나라사랑과 역사를 모티브로 한 동화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특히 삼별초를 소재로 쓰여진 장편동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작품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을 통해 등단한 이후 그는 꾸준히 창작활동을 펼쳐 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작가는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동심을 담은 동화와 동시를 발표해 왔다.

작가는 “이번 작품은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고려시대 삼별초를 다룬 동화”라며 “남녀노소 모두 앞장서 여몽연합군의 공격에 끝까지 싸웠던 삼별초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어린이 눈높이로 전해주는데 초점을 뒀다”고 작품 배경을 이야기했다.

올해 73세이지만 작가는 여전히 창작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 책상에 앉으면 써야 할 이야기들이 문체구름처럼 피어오른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글쓰기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에서 창작

의 힘도 느껴졌다.

이번 동화는 작금의 어지러운 시국과 맞물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역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역사의 진실을 찾고 상상력을 더한 동화는 깊은 의미와 흥미를 전달하지요. 아이들 누구나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삼별초의 애국정신과 효행정신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가는 이번 장편동화를 쓰기 위해 3년 전 진도 시화박물관에서 50일 동안 머물렀다. 연구하듯 다양한 자료를 섭렵하며 삼별초를 공부했다. 그리고 초고를 쓰고 꾸준히 퇴고를 거쳐가며 작품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틈틈이 답사도 병행하며 현장감을 유지했

다. “삼별초가 몽골군과 항쟁을 벌였던 진도의 용장성, 제주도의 향파두리성의 성터를 둘러볼 때마다 조상들의 애국심과 단단한 근거를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창작과 함께 강의와 동요 작사 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육전문학회 문학반 강의와 합평 결과물인 제자들 작품을 모아 육전문집을 발간했다. 또한 초록동요사랑회 2대 회장을 맡아 초록동요선집 1집(악보집), 초록동요 19집(작사집) 출판, 3번째 CD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특히 올해는 대외적으로 유명한 문학상을 받아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동시집 ‘포도송이가 부른다’로 한국아동문학상을, 최근에는 박종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삶의 체험이나 독서를 통해 부단히 창작 소재를 발굴한다. “다독과 통독의 단계를 통해 동화의 모티브와 소재” 등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아이들의 생활 모습과 언어를 통해 소재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 여전히 동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들의 참다운 인격형성을 위해서 아동문학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매스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는 많은 정보들로 인해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향후 계획을 물었더니 그는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동화와 동시를 쓰고 싶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도록 마음에 와 닿는 동요 작사를 쓸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소식이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제2, 제3의 노벨문학상을 받는 문학인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서 작가는 명지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초록동요사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집 ‘연못에 놀러 온 빗방울’, 동화집 ‘날개 달린 사자’ 등 다수의 창작집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수선한 마음 국악으로 달래보세~

전남도립국악단 ‘그린 국악’ 다음달 4일~3월까지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가무악회 ‘그린국악’ 공연 장면.

〈전남도립국악단 제공〉

전남도립국악단이 매년 선보여 온 토요가무악회 ‘그린 국악’이 2025년에도 관객들을 만난다. 1월부터 3월까지 시즌1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다채로운 전통 가·무·악 레퍼토리가 울려 퍼진다.

먼저 1월에는 4일, 11일을 비롯해 18일, 25일(오후 4시)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공연한다.

그중 4일에는 이태원이 작곡한 국악 관현악 ‘룡강 가나리’로 막을 올린다. 이어 ‘얕은반 사물놀이’, ‘부채춤’ 등이 신명을 더한다.

이어지는 민요 ‘사월가’는 사계절의 완연한 아름다움을 남도 소리에 담은 단가다. 국 형식으로 사물놀이를 만나는 ‘사물놀이 판굿’도 있다.

11일 공연은 국악 실내악 ‘미로’로 막을 올린다. 단막 창극 ‘사랑가’ 대목과 ‘강선영류 대평무’, ‘박병천류 진도북춤’ 등 남도 소리의 진수도 공연장을 채운다. ‘대금산조 병주’로 시작하는 18일 공연은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서한우류 비구춤’으로 이어진다.

신정민과 김정민이 함께 편곡한 ‘컨템포러리 아쟁 산조’는 전통의 맛을 동시대적 미학으로 승화시키는 작품이다. 이시영이 구성한 ‘악의 연대기’는 북과 북의 소리를 연결하는 ‘연대 울림’을 기치로 내건다.

끝으로 25일 공연은 ‘비나리’를 비롯해 설장구춤 ‘산홍’ 등으로 구성된다. ‘서영호류 산조 합주’와 민요 ‘널뛰기’, ‘지경다짐’ 등 흥겨운 전통놀이 기반 공연도 레퍼토리에 있다.

임영호가 구성한 판굿 놀이 ‘컨템포러리 판’도 현대와 전통의 교차점을 모색하는 울림을 선사한다.

조용한 총감독은 “새해에도 우리 가무악회를 기반으로 한 ‘그린 국악’ 무대로 관객들에게 찾아갈 예정이다”며 “일상을 벗어나 전통의 여흥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충전’하는 남도 국악 레퍼토리가 새해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고 했다.

일반석 1만 원.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로사회에서의 ‘침과 돌봄’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인문마을 프로젝트 다음달 4회 개최

한병철 철학자는 오늘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한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바쁘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침을 기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침과 돌봄을 마을 공동체와 연계해 모색해보는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이다. 눈길을 끈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이 인문마을 프로젝트 ‘침과 돌봄’을 주제로 광산구 신촌원시인그림책마을도서관에서 연다. 1월 6일, 7일, 13일, 14일 모두 네 차례.

이번 프로젝트는 피로를 느끼는 원인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마을공동체에서 침과 돌봄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각각의 주제는 ‘나는 왜 피곤한가’ (텍스트 카프카 ‘변신’), ‘내 몸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영

화 ‘비밀의 화원’), ‘나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참고 자료와 참여자들의 경험),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텍스트 김순남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다. 퍼실리테이터는 이희경이 맡는다.

정명중 호남학연구원장은 “인문마을’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과 인문학연구원이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침과 돌봄’을 주제로 한 시간이 인문사회 관점에서 침, 돌봄을 함께 생각하고 공유해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토대로 ‘분권시대, 횡단적 보편학’으로 감성인문학: 장소·매체·서사’라는 아젠다로 인문학플러스(HK+2)사업을 수행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1세대 피아니스트’ 한동일씨 별세

해의 콩쿠르 최초 우승...美 텍사스 주립대 등서 후학 양성

한국 1세대 피아니스트 한동일(사진) 씨가 29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종종 우리나라 ‘음악 신동 1호’로 불린 연주자다. 그는 연주를 듣고 감명받은 주한미국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전쟁 직후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기도 했다.

1965년에는 리벤트리트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해 한국인 최초 해외 콩쿠르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1941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그는 교회 찬양대 지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세 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노래를 들으면 바로 피아노로

울려 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지만, 전쟁의 포화 속에 피아노 연주를 중단해야 하기도 했다.

고인은 미국 인디애나 음대에서 1969년 가을부터 학생을 가르쳤고, 이후 37년 동안 텍사스 주립대, 일리노이 주립대, 보스턴 음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2019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으며, 울산대학교·순천대학교에서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연주 활동을 이어왔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고인에 대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피아노 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에 있어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라면서 “피아니스트로서 최초로 우리나라를 알리기 시작한 분이요,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고 추모했다.

김 총장은 “특히 그런 큰 연주자가 되던 후배나 학생들에게는 큰 관심이

이 없을 수 있는데 후배와 제자들에게 너무나 헌신적이었다”고 회고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1월 1일 마련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